

僻派家門 出生의 秋史 金正喜

— 濟州 流配動機를 중심으로 —

姜 周 鎮*

目 次

- | | |
|----------------|-------------|
| 1. 秋史의 出生과 家門 | 3. 秋史의 流配動機 |
| 2. 時·僻黨爭과 秋史家門 | |

1. 秋史의 出生과 家門

지금의 秋史의 小傳을 公의 門人 黃史 閔奎鎬가 撰한 《阮堂 金公小傳》에 의해서 秋史公의 出生에 관해서 몇 자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金正喜는 字가 元春이요, 阮堂 또는 秋史라고 號하였으니 本貫은 慶州金氏이다. 어머니 兪氏부인은 公을 임신한지 24개월이 지나 公을 낳았다고 한다. 公이 태어난 것은 正祖大王 10년 丙午年이니 서기 1786년이다. 이 해는 正月부터 燕京으로부터 不經邪書의 구입을 금하는 해였고 또 五月에는 正祖大王의 長子 王世子가 돌아간 해이다. 正祖 8년에는 李承薰이 燕京으로부터 西敎書冊의 數種을 가지고 왔고, 이 西敎가 퍼지자 9년에는 西學의 獄이 일어났고 또 掌令 柳河源이 洋書의 禁斷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正祖 10년에는 洋書와 天主教冊의 구입을 금지시켰던 해이다. 公은 태어남으로써 효성이 지극했고 형제간에 우애로왔으며 넓게 많은 책을 읽어서 만사에 통달하였다. 23세 되는 純祖 19년 文科에 급제했다. 純祖 9년에 生員이 되었고 이 때에 生父 魯敬이 冬至兼 謝恩使副使로 燕京에 가게 되어 金公은 父親의 수행원이 되어 燕京을

* 前中央大學校 教授, 法學博士

다녀 왔는데 燕京에서 曹江·徐松·翁方綱·翁樹培·翁樹岷 등 淸國의 당대 名儒들과 교분을 맺어 서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相許하는 文交를 가질 수 있었다. 秋史는 文科에 급제한 후 곧 說書에 임명되었으며 檢閱을 거쳐 奎章閣待制가 되었다. 이어서 湖南地方의 暗行御史가 되어 名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弼善을 거쳐 檢詳을 지냈고 大司成 兵曹參判 등을 역임했다. 이렇게 公의 출세가 순조로왔던 것은 公이 月城尉 金漢蠹의 曾孫으로 입양해서 月城尉家의 嗣孫이 되었기 때문에 王家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公이 文科에 급제하자 純祖는 특히 公을 위해서 樂宴을 내리고 月城尉廟에 致祭를 下命하였으니 公의 출세가 순조로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 이 해에 生父 魯敬은 正卿에 加資되고 公조판서와 예조판서에 임명되었으며 또 世子嘉禮都監提調에 임명되고 左副賓客을 겸하게 했다.

公의 家系를 살펴보면 秋史는 慶州金氏인데 慶州金氏는 金氏姓의 大宗으로 新羅 金闕智의 後孫이며 新羅 憲康王 7代孫 太師公의 8代孫 桑村公 金自粹가 麗末에 忠淸道 按察使를 지내고 조선 왕조가 창건되자 安東으로 落鄉하여 은거하였다. 그러나 李太祖는 刑曹判書로 桑村公을 초빙했으나 桑村公은 自決로서 忠臣不仕二君의 충절을 지켰다. 그래서 杜門洞 七二賢 못지않게 유명하게 되었다. 이 분이 크게 가문을 높인 분이며 桑村公의 曾孫 金僖는 太宗四男의 女嬖가 되어 宗戚家門이 되었고 또 僖의 孫 堧이 太宗 一男 璉의 曾孫嬖가 되어 宗室과 重緣을 맺게 되었다. 堧公이 忠南 瑞山의 大橋村(한다리)에 정착하여 주거지로 삼았다. 堧의 曾孫子에 弘郁이란 분이 있었다. 이 분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름을 떨친 분이다. 이 분은 忠淸·黃海 양도 觀察使를 역임한 분이다. 이 분이 특히 名臣이 된 것은 관직 때문이 아니요, 姜嬪의 怨獄을 바로 잡자는 상소 때문이다. 孝宗은 원래 仁祖의 第二王子였다. 仁祖의 長子 昭顯世子가 억울하게 賜死당하자 世子 姜嬪마저 趙貴人의 誣告로 賜死되었다. 이 사건이 孝宗의 등극과 관계가 있으므로 孝宗이 즉위하자 이 문제에 대하여 논란을 금했다.

그러나 세상 선비들이 모두 姜嬪의 獄事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감히 발언하는 이가 없었다. 이를 한스럽게 여기던 金弘郁은 목숨을 걸고 姜嬪을 伸冤시키고자 상소로 直諫하다가 杖殺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士林들 사이에 대단히 높아졌다. 당시 士論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정의 士林代表였던 宋時烈·宋浚吉 등의 伸冤運動으로 孝宗 10년에 金弘郁은 復官되

있으며 이어서 肅宗 44년에는 吏曹判書로 追贈되고 文貞이란 諡號도 내려졌다. 金弘郁의 의로운 行誼로 명성이 높아졌고 그 후손도 번창하여 많은 명사가 배출되었고 그 曾孫인 金興慶은 관직이 領議政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金興慶의 四子中 長子 漢楨은 延安府使요, 二男 漢佐는 戶曹佐郎, 三子 漢佑는 江華經歷을 지냈으며, 末子 漢蠡는 英祖의 長女 和順翁主에 장가들어 月城尉가 됨으로써 王家의 內戚으로서 크게 威福을 누렸다. 그러나 月城尉는 소생이 없어서 漢佐의 第三子 頤柱(右參贊)가 月城尉와 和順翁主의 系子로서 집을 이어받았다. 이 頤柱의 四子가 있었는데 長子 魯永은 禮曹參判이요, 次子 魯成은 水原判官이요, 三男은 魯明이요, 四男이 魯敬(吏曹判書)인데 이 魯敬의 三子中 長男이 正喜요, 次男이 命喜요, 三男이 相喜인데, 長男 正喜는 伯父 魯永의 系子로서 出系해서 月城尉家의 嗣孫이 되었다.

지금 末職 등을 제외하더라도 秋史公의 一族의 家勢를 보면 漢楨의 第三孫子가 魯應인데 兵曹判書요, 그 子 德喜도 兵曹判書요, 秋史公의 子 商懋는 生員, 孫子 翰濟는 參判이다. 또 魯成의 子 教喜는 吏曹參議요, 孫子 有濟도 參判이다. 魯明의 孫子 商一은 襄陽府使요, 그 子 台濟도 參判이다. 또 魯敬의 二子 命喜는 江東縣令이요, 三子 相喜는 戶曹別郎이요, 相喜의 孫子 文濟는 參判이다. 이러하니 興慶 이후로 秋史 일가는 어느 가문 못지않게 고관을 많이 배출한 명가가 되었다. 이러한 가계는 주로 金弘郁의 長子 世珍의 가계인데 領議政家요, 또 月城尉家門이다. 이와 같이 弘郁의 二子 季珍의 가문도 번창한 집안이었다. 季珍의 長孫은 運慶이요, 次孫은 選慶인데 모두 三男을 두었다. 運慶의 三子中 次男 漢祿은 南塘 韓元震의 수제자로 성리학자로서 명성을 얻어 隱逸로 洗馬벼슬을 얻어 했으나 同門 洪量海와 함께 당시 老論中樞人物인 金尙魯·洪啓禧·鄭暉良·申晩 등을 배후 조종해서 思悼世子를 해치는 모략을 꾸미고 주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選慶의 長子 金漢耆는 府院君으로 아들 龜柱를 조종하여 英祖 38년 思悼世子를 모해하는 데 힘써왔다. 이때 金觀柱는 漢祿의 長子로 右議政에 올랐다. 金觀柱는 英祖 繼妃인 貞純王后를 조종하여 英祖 繼妃와世子인 思悼世子를 이간시켜 마침내 英祖로 하여금 二子인 思悼世子를 죽이게 했던 것이다. 貞純王后는 金觀柱의 堂叔 金漢耆의 따님이었다. 金漢耆는 選慶의 長子로서 繁興府院君이며, 選慶의 次子는 漢耆로서 工曹判書를 지냈고, 三男 漢老는 知中樞府事를 지냈다. 王家의 外戚으로서 威福을 가장 많이

누리는 가문이 되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貞純王后의 소생 왕자를 얻어 왕위에 오르게 할 생각이 있기도 했겠지만 思悼世子가 老論에 불만이 있었고 南人이나 少論에 동조했기 때문에 思悼世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극력 반대하다가 마침내 僻派의 主動人物을 내는 가문이 되었고 이러한 과욕으로 해서 마침내 貞純王后가 죽자 거지반 滅家之禍를 입게 되었다. 秋史의 流配生活도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이 僻派家門의 후예라는 데서 온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秋史研究가 있기는 했지만 秋史가 濟州島와 咸鏡道 北靑으로 流配生活을 10여년이나 했는데 무엇 때문에 得罪했는지 밝힌 것이 미흡했고 또 時派僻派의 정치 싸움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秋史의 直系人物中 관직을 많이 얻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老論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老論 중 僻派라는 명분 때문에 많은 요직을 얻어 했던 것인데 이것이 후일의 被禍의 한 요인이 되었다. 秋史가 濟州島로 流配된 것은 父親 金魯敬의 得罪를 변호하려다가 流配되었고 北靑으로 流配된 것은 眞宗의 遷祔 문제로 당시 執權者인 權敦仁을 배후 조종했다는 죄명인데 처음 金魯敬 金正喜 父子를 彈劾한 사람이 金遇明으로 이 분이 金正喜가 暗行御史로 갔을 때 부정한 治績을 적발당하고 파직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秋史 一家가 得罪한 것은 다름 아닌 政治的 勢力 싸움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적 원인이 된 時·僻派의 정치문제를 중심으로 秋史의 유배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時·僻黨爭과 秋史家門

時·僻黨派는 英祖 때 일어났고 이 당쟁은 正祖·純祖를 걸쳐서 성행하던 당쟁이었지만 그 싹은 景宗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려면 肅宗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 肅宗은 本官에서는 大君王자가 하나도 없고 張嬪한테서 두 왕자가 있었고 崔淑嬪한테서 두 왕자가 있었다. 景宗이 형이고 보면 張嬪 소생이 먼저 王世子가 되어 肅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肅宗의 첫째 왕비는 光山金氏 金萬基女요, 繼妃는 驪興閔氏 閔維重女요, 再繼妃는 慶州金氏 金柱臣女이다. 그러나 어느 왕비도 大君 왕자를 두지 못했다. 肅宗은 張嬪한테서 첫 왕자를 얻으니 肅宗은 이 왕자를 지극히 사랑했다. 肅宗 14년에 왕자를 얻었는데 16년에 王世子로 삼으니 이 왕자를 얼마나 사랑했겠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이 해에 張嬪을 왕비로 삼고 15년에 閔王妃를 폐하고 이 해에 왕자의 定號를 반대하다가 宋時烈이 賜死되었으니 처음부터 景宗과 老論은 양립할 수 없는 정치적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景宗이世子가 될 때부터 老論들이 모두 반대했고 최종적으로 老論領首인 宋時烈이 반대하다가 流配 賜死되었다. 이 景宗이 마침내 大統을 이어 왕위에 올랐으니 老論의 설 자리가 없었다. 그간 己巳換局으로 南人이 정권을 잡았다가 肅宗 20年 甲戌換局으로 南人政權이 넘어가고 少論政權이 들어서고 閔王妃가 다시 復位하고 張王妃가 다시 왕비자리에서 내쫓기긴 했으나 王世子の 자리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서 마침내 肅宗 46年 肅王이 서거하자 景宗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老論은 崔淑嬪 소생인 王子(뒤에 英祖)를 王世子로 삼고 왕위를 잇게 하려고 했으나 肅宗이 張嬪 소생인 景宗으로 왕위를 잇게 했다. 이렇게 되니 景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老論重臣들은 景宗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英祖를 王世弟로 삼고 王世弟에 政事를 맡겨서 代理聽政케 하라고 욕박했다. 결국 老論 四大臣인 金昌集·李健命·李頤命·趙泰采 등 四大臣은 연이어 啓辭를 올려 王世弟에게 代理聽政케 하라고 청했으나 왕의 允許를 얻지 못하자 夜中까지 入廷하여 強請하게 되었다. 이때에 景宗이 마지못해 允許했다는 설도 있고, 또 不許했다는 설도 있다. 이를 지켜보던 王大妃金氏 즉 肅宗 再繼妃인 金柱臣女가 이때 王大妃가 되었다. 이 王大妃가 老論四大臣을 불러 諺文敎書를 내려 王世弟의 代理聽政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老論은 이를 계기로 得意하여 국내에 이를 공포하고 淸나라에 이를 奏請하기 위하여 李健命을 上使로 淸國에 奏請使를 파견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景宗의 신임 있는 柳鳳輝·趙泰億(大臣)·金一鏡·李眞儒(文衡) 등은 沈王妃의 형인 沈維賢 등과 급히 상의하여 王命을 僞稱하여 王世弟에게 代理聽政시킨 것은 왕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상소를 올려 逆律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아직 국왕이 나이 어리고 건강도 政事를 돌보지 못할 정도가 아닌데 무슨 망칙한 代理聽政이냐고 반박하였다. 金一鏡과 李眞儒 등은 상소로서 심야에 왕의 允許를 얻었다고 하나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金昌集 등은 외람하게도 밤중에 入宮하여 국왕에게 代理聽政을 強請했으니 이는 마땅히 逆律로 正刑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景宗은 禁府를 시켜 鞫聽을 차려 四大臣을 鞫問하고 또 이에 동조한 八兵使도 같이 鞫問하여 모두 사형에 처했다. 이 사건이 景宗 1년 辛丑年과 2년 壬寅年에 있었던 일이

므로 이를 辛壬土禍라고 老論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政治萬機가 모두 景宗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景宗이 행사하였으나 몇 년 가지 않아서 景宗의 병이 악화하여 景宗 4년에 승하하니 王世弟 英祖가 즉위했다. 英祖의 세상이 되자마자 辛壬土禍에 被禍된 四大臣과 入兵使의 官爵을 復官하였다. 이와 반대로 柳鳳輝·金一鏡·趙泰億·李眞儒 등의 少論 四大臣을 모두 孤島로 流配 보내고 뒤에 모두 처형했다. 그리고 老論 四大臣을 誣告했다고 해서 睦虎龍 등 일파도 모두 처형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 英祖 4년 戊申年에는 慶尙道와 忠淸道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鄭希亮·李麟佐의 亂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居昌에 사는 桐溪 鄭蘊의 孫子 鄭希亮과 淸州의 李麟佐·李熊佐 형제 등이 舉兵하였다. 이때 반란군은 景宗은 老論側에서 독살했다는 것이며 英祖는 肅宗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仁祖의 長子 昭顯世子の 宗孫인 密豐君(坦)을 왕으로 추대하여 王統을 바로 잡자는 뜻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때 淸州에서는 叛軍 申天英이 밤중에 忠淸兵使 李鳳祥을 죽이고 淸州 官衙를 점령했으며 訓練大將 李成·鄭希亮 등은 嶺南에서 起兵하여 한때 嶺南을 지배했으나 嶺南의 名族大家들이 예상외로 호응을 주지 않아서 叛軍으로서는 큰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平安兵使 李思晟도 임지에서 舉兵하려고 했으나 일이 탄로 되었다. 또 이때 叛軍은 總戎使 金重器, 禁軍別將 南泰徵 등과 通謀하여 內外相應하려 했으나 龍仁에 退居하고 있던 原任大臣 崔奎瑞가 告變해서 정부에서는 兵判 吳命恒을 討伐都元帥로 임명하여 叛賊을 토벌하여 반란을 평정하였다. 반군을 문초하니 모두 李眞儒·金一鏡 등이 배후조종한 것으로 탄로되어 모두 참형에 처했다. 이들 반란주동자들이 모두 少論系였으나 이 반란으로 해서 南人系 인물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野黨系인 少論과 南人系人物이 대거 숙청되고 보니 세상 인심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사실상 野黨은 극도로 위축되고 보니 老論들은 政敵들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자체의 내분이 심각하게 될 때에 英祖王妃 徐氏가 英祖 33년에 승하하니 英祖는 己卯年(35년)에 鰲興府院君 金漢耆의 딸을 맞아 繼妃로 삼았다. 繼妃는 吏曹參判 金龜柱의 妹氏였다. 그러나 徐王妃도 왕자가 없었고 繼妃金氏도 왕자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英祖는 靖嬪李氏한테서 왕자를 얻으니 이분이 뒤에 眞宗이고 英祖의 第一王子이다. 그리고 英祖는 暎嬪李氏한테서 第二王子를 얻으니 이분이 思悼世子이

다. 第一王子가 일찌기 죽으니 思悼王子를 세자로 삼았다. 莊獻世子가 이분이 다. 莊獻世子는 洪鳳漢의 딸을 맞아 世子嬪으로 삼았다. 그리고 莊獻世子的 아들 世孫(뒤에 正祖)을 王世孫으로 삼았다. 세상에 알려지기는 莊獻世子는 매우 영특하여 외척의 손에 놀아난 왕권의 회복을 도모하여 老論들이 景宗을 업신여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하며 외척들이 왕권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 외척으로서 세력을 잡고 있는 老論들이 莊獻世子를 미워해서 앞으로 이분이 왕위에 오르면 큰 일이 난다고 하는 老論들의 公論이니 老論과 思悼世子와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老論들은 思悼世子와 英祖를 이간질하여 마침내 英祖는 思悼世子를 죽이게 된다. 이때 思悼世子를 謀害하는 一黨을 僻派라고 했고 思悼世子를 보호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자는 일파를 時派라고 했다. 또 英祖는 思悼世子를 미워했지만 그 아들인 世孫(뒤에 正祖)은 매우 사랑했다. 이때 秋史一門인 金龜柱와 秋史의 祖父인 金頤柱 등이 僻派의 중심 인물이었다. 이때 時派는 正祖의 장인인 洪鳳漢을 비롯해서 南人領袖인 蔡濟恭 등이 思悼世子와 世孫(正祖)을 보호하자는 중심 인물이었다. 벌써 英祖의 寶齡 80이 되고 보니 기력이 쇠약해져서 매일 보약을 바치는데 매일 인삼 한냥중으로 茶를 다려서 바치었다. 하루는 金黨興 府院君과 國舅 洪鳳漢 領議政이 같이 왕을 문안드리게 되었다. 이때 洪領相이 藥房都提調로서 약방에 나와 계속 인삼을 다려 올렸으나 이미 약효가 없으므로 홍삼으로 대신해서 蔘茶를 다려 바쳐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때 金漢耆 府院君은 노인은 기력이 쇠잔해서 겨우 인삼의 힘으로 기운을 유지하고 있는데 홍삼으로 어찌 기운을 차리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洪領相은 실권이 있음으로 金府院君의 의견을 물리치고 홍삼으로 대치시켰던 것이다.

金漢耆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아들 金龜柱는 매양 洪領相이 국왕의 건강을 소홀히 한 죄가 크다고 국왕 앞에서까지 통박하니 洪領相과 金龜柱와는 매우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얼마 안 되어 金黨興 府院君이 죽게 되자 金龜柱는 은밀히 湖西사람 韓鑰를 시켜 원수를 갚는다는 뜻으로 도끼를 들고 本疏를 업고 洪領相을 공박하여 洪領相의 목을 잘라야만 宗社가 안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국왕은 鞠廳을 차려서 韓鑰를 鞠問하여 治罪했으나 죽이지는 않고 먼 섬으로 귀양보냈다. 그 후 韓鑰는 다시 풀려나서 洪領相을 공박하는데 흉악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국왕이 크게 노하여 禁府를 시켜 혹독하게

고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時派의 領首는 洪鳳漢이요, 僻派의 領首는 金龜柱였다. 이때부터 집권당인 老論이 양분해서 時派와 僻派로 크게 양분되었다. 말하자면 英祖의 丈人 및 妻男과 英祖의 王世孫의 장인이며 領相인 洪鳳漢과의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 英祖는 丙申年 재위 52년만에 승하하니 王世孫인 正祖가 왕위에 올랐고 思悼世子 형 孝章世子を 追崇하여 眞宗으로 올리고 正祖는 伯父인 眞宗의 뒤를 잇게 했다. 正祖의 모친인 洪大妃는 金龜柱가 韓鎔를 사주하여 그 친정부친을 옥보인 것을 크게 원수로 삼았다. 새로 正祖가 왕위에 올랐으므로 朝廷重臣들이 모두 축하와 大妃의 병환을 문안 올렸는데 金龜柱만이 혼자 불참하였다. 大妃가 患中인데 홀로 金龜柱만이 문안 올리지 않는 것은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 가문 높은 것만을 믿고 신하의 도리를 저버렸으므로 이를 죄명으로 濟州島에 流配시켜 오만하고 거만한 악습을 바로 잡으려 했다. 이때 洪領相의 勢道政治가 일시 천하를 호령하게 되니 時派가 크게 힘을 썼다. 이 時派의 중심인물은 蔡濟恭·鄭弘淳·李在協·李在簡·徐洗修·徐命善·鄭民始·徐有隣·徐有防·洪國榮·李義翊·李福源과 李福源의 아들 李時季·李晚秀·尹行愆·鄭東俊·沈豐之·鄭志儉·洪良浩 등인데 이들은 25년 동안의 집권기간 중 많은 사람이 이에 가담했으므로 모두 여기에 열거할 수 없을만치 많다. 또 僻派로서는 주로 老論의 일부들이지만 金尙魯·金鍾秀·鄭致達·俞彥鎬·申光綏·沈煥之·鄭羽良·李奎緯·柳星漢·李魯春·魚用謙 등인데 모두 時派가 배척하는 인물이므로 모두 등용되지 못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복잡한 것은 正祖大王의 長子 文孝世子가 있었는데 宜嬪成氏 소생이었다. 文孝世子가 일찌기 죽음에 후사가 없었다. 正祖王妃 淸風金氏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리고 二男으로 綏嬪朴氏 소생이 있었는데 이 분이 뒤에 純祖가 되어 왕위를 계승했다. 아직 純祖(二男)가 생산되기 전에 후사가 없어서 큰 근심이 되었다. 이때 錦城尉 朴明源(英祖嬪 暎嬪李氏 소생, 和平翁主 男使, 月城尉와 同嬪)이 風水卜術 등의 재조가 있어서 국왕에 권고하기를 莊獻世子(思悼世子)의 묘를 華城으로 遷葬할 것과 明源의 族弟 準源의 딸을 嬪으로 삼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과연 綏嬪朴氏는 二男 純祖를 생산했다. 이렇게 되니 왕은 錦城尉 明源의 말을 잘 들으며 모두 그 말대로 하면 국가에 좋은 일이 있게 되니 錦城尉의 권고는 잘 들어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朴嬪의 호를 嘉順으로 내렸다. 朴嬪에게는 친정에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형으로는 宗輔·宗慶이 있고

아우로는 宗翊·宗喜 등이 있었다. 庚申年 봄에 元子를 世子로 삼고 侍講院을 둠에 前日에 사랑하던 모든 신하를 물리치고 山林處士인 金日柱를 불러 洗馬로 삼고 鄭日煥을 翊衛로 삼았는데 金日柱는 金龜柱와 再從間이었다. 그리고 鄭日煥은 典翰 直提學, 獻煥의 從弟였다. 이렇게 되니 侍講院은 하나로 모두 僻派人物로 이루어진 셈이다. 時派人物이 하나도 없었다. 어찌된 셈인지 僻派重鎮인 沈煥之를 불러 奎章閣直提學을 시키니 세상이 모두 時派는 인제 볼 일을 다 봤다고 하며 僻派世上이 왔다고들 했다. 1년전인 正祖 23년에는 時派首領인 蔡濟恭이 세상을 떠나니 時派는 주동인물을 잃게 되었다.

신뢰하던 蔡濟恭이 죽자 正祖는 僻派를 등용하기 시작했다. 이 해에 世子를 學宮에 입학시키고 閣臣 金祖純女로 世子嬪으로 간택하고 嘉禮를 올리기 전에 正祖는 승하였다. 正祖는 돌아가기 전에 정신이 몽롱했음인지 君子와 小人을 잘 식별하지 못했고 金履喬를 流配地에서 석방하기도 하여 朝令暮改하여 天意가 과연 어디 있는지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正祖가 급히 승하하니 11세 되는 나이 어린 王世子 純祖가 왕위에 오르니 宮內 最高位인 大王大妃 金氏가 垂簾聽政을 펴게 되었다. 大妃는 洪氏이지만 아직 英祖 繼妃가 살아 있음으로 金大王大妃가 정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蔡濟恭이 죽고 正祖가 돌아가자 일시에 時派政權이 僻派政權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자 僻派 領首格인 沈煥之가 院相이 되어 金大王大妃를 도와 정사를 담당했다. 이때에 老論이면서도 時派였던 金履翼·金履度 등이 제일 먼저 流配를 당했으나 安東金氏中 오직 金祖淳만이 國舅로서 時派에 속했지만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권이 沈煥之에 있었다. 沈煥之는 극력 時派를 몰아내는 입장이고 또 蔡濟恭이 심어놓은 南人系 時派를 숙청하기 위하여 천주교 신자와 가까운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辛酉邪獄을 일으키어 李承薰·丁若鍾 등을 죽이고 丁若鏞·丁若銓 등을 流配시키는 한편 僻派를 몰아부쳤던 正祖의 심복인 前領相 蔡濟恭의 官爵을 追奪하였다. 이때 蔡濟恭을 剖棺斬屍하려 했으나 棺에 銘旌이 正祖御筆로 되어 있어서 면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때 沈煥之의 記室者가 李書九였는데 李書九는 鄭民始의 심복인데 沈煥之의 公私文書는 모두 李書九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같은 老論中에 時僻黨이 서로 대립 항쟁했고 그 屈伸이 급변하게 되니 徐龍輔 같은 이는 그 부친 徐有寧이 丙申年初 正祖가 왕위에 오를 때에 大司憲으로서 金龜柱를 배척했는데 그 당시에는 大王大妃가 매우 분

하게 여겼으나 이 때에 와서 그 아들 徐龍輔를 크게 등용하여 右相으로 삼으니 그 전일 부친의 잘못을 불문에 부쳤다.

이때 세상 사람이 그 부친은 時派에 아첨하여 金龜柱를 배척하더니 그 아들은 僻派에 아첨하여 政叟이 되었다고 했다. 大王大妃金氏가 垂簾聽政을 하자 처음 徐龍輔가 右相이 되었는데 이 徐龍輔의 妹夫가 있었는데 이름이 入千이라고 했다. 이 사람이 閣臣 金勉柱의 姪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통로가 되어 등용되었다고들 했다. 이렇게 純祖王 초년에는 실권을 沈煥之가 잡았다 하나 大王大妃의 배후 조종도 있었고 또 그의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正祖 25年 동안 失勢하다가 다시 純祖 원년에 僻派가 잠시 세력을 만회하고 보니 권력의 屈伸이 많았다. 이를테면 純祖 30年 金陽淳은 安東金氏로서 大司憲이 되어 金魯敬(金正喜父)을 죽여야 한다고 兩司合啓할 때에 강력히 주장했으나 憲宗 4年에는 金陽淳 자신이 역적으로 몰리어 국문당하다가 죽었으니 당시 권력의 屈伸이 이와 같이 무상하였다. 이때 즉 純祖 30年 兩司合啓는 金魯敬을 규탄할 때 보면 純祖 19年 趙萬永女로 世子嬪으로 定婚할 때에 朝鮮百官이 모두 이 國婚을 慶賀했는데 오직 金魯敬만이 이에 반대하여 크게 불평을 말하고 함부로 흥언을 퍼뜨리니 신하로서 있을 수 없는 불충이니 마땅히 국문해서 正刑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3. 秋史의 流配動機

秋史는 出系해서 月城尉 金漢耆의 뒤를 이었고 또 秋史의 生家는 月城尉의 第四孫 金魯敬의 三男中 장자로 태어나서 伯父 魯永의 系子가 되었는데 祖父· 顯柱는 右參贊을 지냈고, 養父 魯永은 禮曹判書 生父 魯敬은 吏曹判書를 지냈고, 秋史 自身도 兵曹參判을 지냈다. 또 金顯柱의 生家 종손 道喜는 左議政, 顯柱의 侄 魯應은 兵曹參判, 그리고 魯應의 子 德喜는 兵曹判書를 지냈다. 이와 같이 英祖 繼妃의 父인 金漢耆의 長子 龜柱는 戶曹參判, 金漢耆의 弟 漢耆는 工曹判書, 그 아우 漢耆는 知中樞府事, 漢耆의 아들 龍柱는 同副承旨, 그리고 漢耆의 從班인 金漢祿은 南塘 韓元震의 수제자로서 도학자로 이름이 있었고, 漢祿의 長子 觀柱는 右議政을 지냈고, 第二子 日柱는 戶曹參議를 지냈으며 漢祿의 형인 漢禧의 第一子 獻柱는 平壤判官 第二子 勉柱는 右參贊을 지냈으니 秋史一門은 王室 內外戚臣家로서 더 이상 영광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영화를 누렸

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이 일시에 몰락을 겪게 되었으니 그것은 秋史一門이 老論中에서도 僻派에 속해 있었고 특히 金龜柱는 僻派의 중심인물로서 思悼世子를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正祖가 世孫으로서 代理聽政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世孫으로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저지하는 운동을 암암리에 했다는 것으로 해서 老論時派와 少論 내지 南人들의 적이 되었고, 또 正祖大王의 대우도 말년에 가서는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正祖大王이 머느리되는 純祖王妃를 정하는데 있어서 한다리 慶州金氏를 외면하고 安東金氏 時派 金祖純의 따님으로 정해 놓고 正祖大王이 승하했기 때문에 純祖는 正祖大王이 승하한 후 한때 貞純大王大妃가 垂簾聽政을 하는 바람에 한때 다시 僻派가 세도를 부렸으나 純祖大王이 4년 후에 親政을 했기 때문에 貞純大王大妃의 垂簾聽政은 철거되었다. 이때부터 秋史一門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즉 純祖 6년에는 安東金氏인 金履陽·金履喬·金義淳 등의 탄핵으로 秋史家門인 金觀柱는 죽게 되고 金漢祿은 官爵을 追奪당하고 金日柱·金華柱·金勉柱·金弼柱·金寅柱·金魯享·金魯鼎·金魯璉·金魯文·金龍柱 등이 모두 유배당하게 되고 金龜柱도 官爵을 追奪당했다.

純祖가 집정한 후 純祖 5년에 貞純大王大妃가 승하하자 秋史一門은 큰 배경이 없어진 셈이다. 이때부터 한다리 金氏는 물리는 세였고 安東金氏는 純祖王妃를 배경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그러나 秋史家門中 月城尉집은 現勢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純祖 19년만 해도 魯敬에게 工曹判書와 禮曹判書를 제수하는 등 별 탈이 없었다. 이 때에 秋史가 文科에 급제하자 純祖는 月城尉嗣孫이 급제했다고 해서 축하하는 賜樂을 내리고 月城尉家廟에 致祭까지 내렸다. 그리고 같은 해 純祖의 長子 孝明世子の 國婚이 있게 되자 魯敬은 宗室·內外戚家の 大臣으로서 世子 嘉禮都監提調로 임명되었으나 간택하는 데는 권한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秋史와 同榜及第人인 趙寅永의 질녀가 世子嬪으로 간택되어 뒤에 神貞王后가 되었다. 이 간택에 있어서 金魯敬은 처음부터 臚臣으로 지탄받은 趙鎮寬의 손녀라고 하여 간택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서 金魯敬과는 서로 疎遠한 관계가 되었지만 당시 豐壤趙氏一門은 安東金氏家門에 물리는 형세이어서 豐壤趙氏는 적극 慶州金氏家門과 가까와 졌다.

이렇게 豐壤趙氏집과 安東金氏집이 대립하는 동안에 慶州金氏집은 외척으로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金魯敬은 純祖 25년만 해도 判義禁府事가 되

고 그子金正喜도 議政府檢詳을 거쳐 禮曹參議의 요직에 올랐다. 그리고 秋史의 再從兄인 道喜와 막역한 사이인 權敦仁·趙寅永 등이 고대로 禮曹參判職을 맡는 등 입장이 조금도 나빠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秋史一家의 세력이 커지자 純祖 6년 貞純王大妃가 昇遐하자 곧 安東金氏는 한다리 金氏를 제거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金龜柱 집의 팔촌친척에 걸쳐서 모두 잡아다가 유배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이때 秋史一門의 僻派大將인 金龜柱가 살아 있었다라면 무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金龜柱는 正祖 10년에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그래서 純祖 7년에 正言 李希祖가 상소를 올려 陳勉할 것을 말하고 또 羅州·平海·楊州 儒生들이 金龜柱와 金鍾秀를 위해서 祠堂을 건립하겠다고 말하자 純祖는 批答을 내려 말하기를 만일 이들의 祠堂이 있으면 곧 철거하라는 下命을 내렸다.(純祖 7年 9月 實錄) 또 이때 徐美修가 叛逆罪人 金漢祿의 妻侄인데 처가에 부탁하여 發身하여 관직을 얻어 했다고 공격하고 이들이 모두 金龜柱의 血黨들이라고 공박한 것을 보면 英祖 때 있었던 僻派의 죄목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金龜柱 일파는 이미 正祖가 즉위하자마자 三司合啓로 黑山島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賜死되었다. 金龜柱 일당은 이미 英祖때에 思悼世子를 해치려 하였고 또 正祖가 世孫으로 代理聽政하는 것도 방해하여 英祖 繼妃와 和順翁主 그리고 文尙宮 등의 음모로 尊賢閣賊變 등을 일으키어 文尙宮·高尚宮 등을 은으로 매수하여 갖은 음모를 꾸민 것이 탄로되어 모두 正刑에 처해졌다. 그리고 처음 金龜柱를 탄핵할 때에 南漢에 暗行御史 鄭志儉을 보내어 역대 廣州留守의 비행을 조사하니 軍餉虛實이 450석이나 축이나서 覈問한 결과 부정이 드러나서 並奪 告身하여 金龜柱의 관직을 추탈했지만 요는 僻派 주동인물로서 유배되었던 것이다. 鄭賢閣賊變은 景秋門을 불법 潛越하는 사건이었다. 이때 淑儀文氏(文尙宮)가 잉태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하였다고 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서 영아를 몰래 운반하려던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또한 복잡한 문제는 孝明世子(뒤에 翼宗)가 代理聽政을 하게 되었는데 불과 3년을 지내자 급서하는 흥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니 安東金氏(세칭 壯洞金氏)는 매우 초조해졌다. 그래서 한다리 金氏와 적대관계에 있는 壯洞金氏는 秋史一門을 더욱 미워했다. 秋史가 한때 忠淸道 暗行御史로 갔다가 庇仁縣監으로 있던 金遇明의 비위를 적발해서 파직시켰더니(純祖 26年 8月 實錄 265面) 뒤에 金遇明이 副司果가 되었는데 이 金遇明이 秋史의 生父 金魯敬을 탄핵하게 했

다. 이에 앞서 秋史는 암행어사가 되어 忠淸道를 조사했는데 瑞山郡守 韓用儉, 禮山縣監 李溟夏, 韓山郡守 洪義錫, 魯城縣監 李時在, 泰安前郡守, 許晟, 保寧前縣監 宋在淳, 庇仁縣監 金遇明, 靑陽縣監 洪逸淵 黃巢, 結成 前縣監 成達榮, 前水使 尹相重 등을 모두 부정이 있다고 조사 보고해서 과직당하게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나쁘게 보고했으니 적도 많이 사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 金遇明의 탄핵내용을 보면 「金魯敬은 牟利貪虐하고 趨勢를 평생의 능사로 삼아 孝明世子가 代理聽政할 때 世子の 寵臣인 金鏞에게 아부하고 또 判義禁府事로 있을 때 처사가 공정치 못하였으며 兵判·戶判·平安監司 등을 역임하면서 牟利를 일삼았는데 그 요망스러운 아들과 그 포악한 조카들이 그 불법행동을 방조하였으니 마땅히 正刑에 처해야 된다」고 했다.

이것이 純祖30년 8월의 일인데 또 30년 9월에 가서 領議政 南公轍, 左議政 李相演, 右議政 鄭晚錫 등이 啓言으로 말하기를 三司도 合啓해서 金魯敬을 규탄했지만 그의 죄목이 삼조인데 設鞫嚴門하여 正刑에 처하라고 했고 또 같은 9월에 다시 金魯敬을 규탄하기를 姪婿에까지 세도를 팔았다고 말하고 權奸의 納諂에 빠지고 押情으로 仕宦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純祖 19년 趙萬永의 딸로 世子嬪으로 간택할 때 명문을 간택했고 大禮를 이미 정해서 전국민이 모두 경축하는데 金魯敬 혼자만 불만을 품고 무엄하게 함부로 말을 하여 흉언을 퍼뜨렸다고 비난하고 三司와 같이 三政丞이 모두 啓言하였으나 純祖는 경솔히 할 수 없다고 不允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純祖 31년 三政丞과 三司가 合啓하기를 또다시 金魯敬을 탄핵했다. 그러나 貞純王后가 살아 있어서 극력 보호했기 때문에 金魯敬 등은 무사해서 戶曹參判에 임명되는 등 별일이 없었다.

英祖 繼妃집인 金漢耆 府院君집은 이미 절단이 났지마는 月城尉家는 아직 아무 일이 없어서 生父 金魯敬은 그 뒤에도 禮曹判書 등으로 승임하고 또 冬至副使로 燕京을 다녀오는 등 활약이 많았고 大司憲 義禁府事 弘文館提學 등 여러 관직을 임명했으나 三司와 三政丞의 탄핵은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탄핵 중에도 金遇明의 탄핵이 직접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 金魯敬이 古今島로 유배되고 또 이것이 억울하다고 秋史는 정부와 국왕에 호소하던 끝에 마침내 秋史는 擊錚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한 것이 화근이 되어 義禁府에서 啓言을 올려 秋史父子를 탄핵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秋史가 물리어 濟州島 大靜으로 유배당하게 되었다. 지금 義

禁府 啓言을 實錄에 의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義禁府啓言. 前承旨金正喜. 以其父魯敬訟寃辜擊錚. 而取見其原情. 則以爲渠父魯敬. 再昨年慘被金遇明構誣醜辱. 繼以白地兩案. 忽入臺論. 以若聲罪之至重. 何望生全. 而伏蒙我 殿下洪恩蔭渥. 處分之日. 辭教至於渠之曾祖母. 特從世有之典. 重垂曲保之澤. 况聖教中. 梁楚一句. 淵衷之置. 諸然疑. 尤可仰認矣. 渠之闔門. 雖即糜身. 何以報答. 而渠之曾祖母不昧之精爽. 亦將感泣. 其所謂抑情仕宦之說. 曾在丁亥夏間. 渠父往赴烟威家宴席. 南海縣安置罪人金鏞. 適在座. 語次間向渠父而曰. 代聽以來. 自小朝攝理萬機. 躬履庶政. 豈不盛矣云. 則渠父答曰. 睿齡鼎盛. 代總庶政. 克體我大朝付托之聖意. 如吾輩少須與無死. 獲觀盛舉. 不勝欣忭. 所言止此. 至於數十年抑情仕宦云. 初無語脉之彷彿矣. 渠之從兄教喜. 自寧邊任所遞歸. 忽聞浮說之流行. 逢着金鏞於公座. 追問其時酬酢之如何. 則鏞之所答. 即與渠父之言. 無一差爽. 鏞今生存. 焉敢誣也. 而已卯凶言事. 尤萬萬虛謊寃痛矣. 渠父果有此凶言. 則言之必有其處. 聞之必有其人. 此果何等關係. 而孰肯掩護. 乃於十餘年之後. 始爲發露乎. 且平日藉手而事君者. 即惟在於嚴忠逆一節. 至於裕賊之凶濫逆節. 爲今日臣子. 人孰不沫血致討. 而渠父於此義理. 秉執尤嚴. 乃於垂死之年. 自非喪心失性. 則何敢倡爲凶言. 甘與裕賊而同歸乎. 似此至寃抑至痛迫之狀. 庶可畢燭. 餘外許多臚列. 無非構虛捏空. 而比諸上項所陳兩條. 猶屬緩聲. 苟欲張皇條辨. 徒增煩瀆矣. 渠爲人子. 見其父抱此惡名. 急於爲父訟寃. 有此冒萬死訴寃云矣. 臺啓方張. 罪案至重. 請原情勿施. 允之.」

그러나 처음 국왕은 허가해 주지 않았지만 三司合啓로 강력히 秋史에게 죄를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또 三政丞도 같이 합세하니 국왕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끌어오다가 마침내 右相 趙得永의 啓言으로 減一等하여 死刑을 면하게 하고 제주도로 유배당하게 된다.

이 무렵에 또 尹尙度獄이란 사건이 생겼다. 즉 이에 앞서 純祖 26년 8월에 副司果 尹尙度가 戶判 朴宗薰, 前留守 申緯, 御營大將 柳相亮 등이 金鏞에 아부하고 국권을 擅用하여 虐民貪色하였다는 죄목으로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 일이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尹尙度獄의 발단이다. 尹尙度는 허위로 朝廷重臣을 誣告했다고 했으며 이는 오로지 金魯敬이 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君臣을 이간시키려는 흉모라고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자 大司憲 金陽淳, 大司諫 安光直 등이 兩司 合啓로 金魯敬을 규탄하니 마침내 三司合啓가 되고 三政丞까지 가담하게 되니 金魯敬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졌다. 이 尹尙度 事件이 秋史가

귀양가게 되는 큰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지금 秋史가 죄를 얻어 유배당하게 되는 둘째 이유로 尹尙度 獄事를 들었는데 지금 그 근원이 되는 尹尙度의 상소문의 대략이 實錄에 있기에 여기에 기록해 두겠다. 즉

「先是。副司果尹尙度疏略曰。愚忠有所憤激。則不可拘於出位。義分急於懲討。則不可緩而待時。噫嘻。戶曹判書朴宗黨。前留守申緯。御營大將柳相亮。孤負睿恩。同惡相濟。跡其行事。言之醜也。論其設心。罪之大者。彼宗黨。以名祖之孫。前後歷敷。固何如。則在渠圖報之道。宜倍他人。而惟其賦性狡黠。行已妖慝。糟粕文藝。欺一世而釣名。嫉妬質能。厭勝己而誤人。以言乎考試。則一榜都是循私。以言乎銓選。則凡寡全不奉公。自近以來。蠱附權奸。蠅營麗利。貪權鬻勢。把作家計。吮癭舐痔。自爲能事。外若矜飭。內懷邪毒。左右操縱。惟金鏞是藉。抑湯進退。惟金鏞是聽。暗啖列邑之財帛。以充一鏞之溪壑。蠶國病世。莫此爲甚。而特其薄物細故。引君當道。聖賢之訓。而彼乃反之事君。勿欺臣子之分。而彼則蔑如。締結非類。攀援曲逕。爲計也鄙。造惑也虞。百般奇巧。出自渠手。殆至曹儲之竭然。且聞銀子之貸下舌人。多至四千兩云。當此國用板蕩。事務繁大之時。無一分爲國備虞之心。恣意擅用。必欲病國乃已。究厥罪。合置何辟。噫彼申緯。巧言令色。專事媚悅。伎倆素是娼家之妙童。蹤跡殆若權門之寵隸。人所唾罵。固不足責。而惟其賦形輕薄。稟性淫邪。故出宰春川虐民魚色。怨聲載路。及留沁府。舊習未悛。剝民貪色。又有甚於前日。多財者至於蕩放。有女者色斯逃去。莫重之地。十室九空。渠若有一分報答之誠。寧忍有是。此亦渠之細過。其他罪狀之至奸極凶者。臣不敢條陳。而即聞一世人喧傳。則睿候大漸之前一日。都下臣民。莫不焦遑罔措。念靡暇他。而緯乃大設杯盤。廣速儕類。金玉在座。坐擁娼妓。珠翠環筵。鎮日淫謔。猶有不足。又卜其夜。是可忍也。孰不可忍也。惟此而可知其陰謀奸計之無所不至。街談巷說之儘非虛語也。莫顯乎隱。十手所指。皆曰可殺。萬口難防。噫彼柳相亮。受國厚恩。出關入將。爵之高矣。榮之極矣。當竭力殫誠。圖報萬一。而出則凌民膏血。奇貨異產。車載馬駝。絡繹道路。入則莫重公貨。開門爛用。計在媚竈。罪關欺天。且以一世之所目覩喜之。起廣廈於藥峴。是誰之家。罄青銅於營儲。是何等財。眼無君父。肺結權奸。究厥設施。抑亦何心。其所爲惡。惟日不足。縱其妖子。行其巧慝。放恣無忌。無所不爲。渠亦人耳。何忍爲人臣所不爲之事乎。噫彼三凶之罪。可勝誅哉。蓋其設計陰險。造意奸慝。自以爲人所不見之地。有誰知之。人所不知之事。有誰言之。暗售人所不忍爲之計。恣行人所不敢言之事。此誠前古奸臣小人所未有者也。究厥心則寸斬無惜。聲其罪則萬戮猶輕。伏乞下臣章於三司。使臣言有一毫虛僞。則臣當伏誣人之罪。臣言果不虛妄。則朴宗黨申緯柳相亮。

返降處分。並施當律。至是。批曰。爾則當處分矣。又教曰。人心雖曰陷溺。猶當有一半分
 嚴畏忌憚之心。所謂尹尙度者。獨非朝鮮之臣子乎。其論三人。語極陰慘。至曰爲人所不
 忍爲者。此果何謂也。如渠鄉谷愚蠢之類。豈能自辨。必有叵測指使之入。欲爲乘時
 煽亂之計。固當嚴鞫得情。以正人心。以息邪說。而屢回思量。不欲索言。反傷事面
 姑從惟輕之典。尹尙度揪子島定配。」

또 純祖 31년 10월에 掌令 李鎭華가 상소로 말하기를 금일에 의리가 金魯敬
 과 尹尙度보다 더 타락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아무리 聖上이 관대한 덕이 있고
 包容之量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하고 온 국민
 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언제까지 봐 주고 덮어두렵니까 하
 고 죄 줄 것을 강조했다(純祖31년 10月 實錄 卷之31卷). 尹尙度(英祖44~憲宗 6,
 1768~1840)의 字는 子精이요, 坡平尹氏 尹成九의 子이며 楊州生이다. 純祖 7년
 에 文科及第(1830年)하여 副司果로서 朴宗薰(戶判)을 탐관오리라고 論斥했다가
 君臣 사이를 이간시킨다는 죄목으로 楸子島에 위리안치되었다. 처음 尹尙度가
 楸子島로 유배갈 때에 金鷲도 같이 南海縣으로 유배되었다. 그 뒤에 大司諫 安
 光直, 正言 成遂默 등이 尹尙度の 죄는 司誅해야 된다고 啓言하는 바람에 끝내
 는 처참되었다. 그리고 또 丙寅에 兩司가 合啓해서 大司憲 金陽淳, 大司諫 安
 光直, 掌令 權徽, 正言 成遂默 등이 合啓하기를 金魯敬의 죄는 司誅해야 된다고
 했다. 또 玉堂에서 聯疏하여 金魯敬의 設鞫得情하라고 했으나 왕이 不允했
 다. 이때의 죄목으로 뚜렷한 것은 세자 간택을 반대하고 沮戲했다는 것이었다.
 이때 三司合啓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大司憲 金陽淳, 大司諫 安光直, 正言 洪
 重燮, 正言 成遂默, 執義 朴升鉉, 應教 鄭東煥, 掌令 權徽, 李正者, 修撰 吳致
 淳, 副修撰 申冕周, 徐有贊, 獻納 李應信, 校理 李根友, 副校理 朴宗瓚 그리고
 三正丞은 다음과 같다. 領相 南公轍, 左相 李相瓚, 右相 鄭晚錫 등이었다.

또 純祖 30년 11월 丙寅에는 成均館 儒生 生員 魚用夏 등 397명은 陳請하여
 金魯敬 등의 並賜處分을 주장했으나 국왕은 金魯敬·李鶴秀·金教根 父子事에
 대해서는 三司가 매일 떠들어대고 있지만 아직 그 支離煩費를 자세히 알지 못
 하고 있으나 곧 사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 유생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타이른
 일도 있었다. 이렇게 金魯敬과 尹尙度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자 30
 년 11월에 三司가 다시 伏閣求對했으나 국왕은 물러가라고 하명했다. 이렇게
 국왕이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나 결국 純祖 30년 金魯敬은 翼宗이 代理聽政

을 할 때 翼宗의 寵臣 金路, 洪起燮 등과 같이 重臣으로 있으면서 專權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죄와 李肇源의 옥사를 덮어두고 죄를 밝히지 않았다는 죄와 國婚을 반대하고 국가경사를 外面했다는 죄목으로 康津 古今島에 위리안치되었다가 그후 1840년에 賜死되었다. 金魯敬은 글씨를 잘 썼으며 秋史는 그 부친한테 글씨를 배웠다고 한다. 그 후 秋史는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서 伸冤시키려고 많은 伸冤운동을 했다. 즉 純祖 32년 壬辰 2월에 秋史를 劾탄하고 正刑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하니 純祖도 하는 수없이 義禁府를 시켜 金魯敬을 康津縣 古今島에 圍籬安置하게 했다.

이와 같이 金魯敬이 처음 공격을 당한 것은 純祖 30년 庚寅 8월에 副司果 金遇明의 탄핵으로 시작되었다. 金遇明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庇仁縣監으로 있을 때 암행어사 金正喜가 그의 부정 보고를 했기 때문에 파면되었던 사람이니 실로 이 金遇明의 秋史父子의 탄핵은 일종의 보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별다른 죄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安東金氏와 慶州金氏의 외척의 세력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副司果 金遇明의 탄핵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副司果金遇明疏略曰。顧今事關懲討。義在洩飲。不避出位之嫌。敢陳瀝血之章。竊伏見近日公車之上。章奏堆積。而巨猾大賤。尙此獨道。無乃盤據之固。氣焰之盛。人莫敢言之而然耶。臣奏爲世道惜之也。噫嘻。前監司金魯敬之罪。可勝誅哉。渠以禁鬻之餘。實無寸長於人。而歷敗華要。罔非家世之所無。浪到崇顯。亦豈本分之近似。則其所以感激圖報。宜倍他人。而惟其貪鄙之性。得失是患。內外居官。循私恣虐。平生能事。機利趨勢。及夫丁亥代聽之初。大生惶恟。計在固位。奴顏婢膝。向金路而乞構。數十年生死。不得抑情仕宦之說。是何凶悖。而肆發於人家宴席稠集廣會之中。聞之者或曰尙能不若。白首殘年。何所不足。甘自爲此。人若問之。亦不敢分疏。而恬不知愧。貪進不已。且在姪婿李鶴秀之貪天爲功。恣弄威福之時。甘心血黨。惟指揮是聽。乃於徐有圭初上原清之日。渠以金吾判堂。目見李肇源逆節昭著。而全無明張之心。反生庇護之私。潛示肇源之子。使之至於鳴冤。仍爲掩秘。使一世無有知者。若非有圭之冒死更籲。則莫嚴之義理幾乎晦泯。至凶之情節無以彰露。營覆黨惡。計雖切至。君隸國賊。愛之尤篤。是豈橫目北面之列所可爲哉。及夫徐萬修處分之後。又復毒施加杖。竟至撲殺滅口。承望於凶逆之旨。報復以王法之外。苟有人心。是可忍耶。於是乎揚揚自得。氣豪意健。本兵係是宿跡。南留自來所欲。則警地遷換。惟意之從。度支曾所未經。西蕃世稱腴厚。則次第圖占。看作己物。卽此數事。從古權奸。無以過之。而妖子之常持反論。巧作涉世之良方。而不顧歌倫之畏。悍姪之席勢使氣。認爲膏人之

愚計。而莫覺濟惡之歸。同朝之差恥。輿論之唾罵。去而益甚。而至若任惠局而專事牟利。賈市有投石之舉。在中權而任殺人命。禁旅沮宿衛之誠。龐民害國。孰大於此。盛備綺饌。往別時貴。駭送重貨。作壽權門。又何鄙陋之甚也。叨據雄蕃。苟充溪壑。何患無術。而輒敢憑藉嚇恐。遐俗輕價。勒奪無所。不至聽聞之驚駭。人心之眩惑。又豈細憂也哉。第宅之煥制。器服之窮巧。亦出於全無忌憚。而傷風病俗。在所當勸。令臣臚列特舉其概。則是何樣人物。而乃敢自居甚高。動稱士類。隨事憂歎。眞若有識者然。誠不萬一笑也。然而下段所論。不過薄物細故。惟是抑情仕宦之說。掩護凶逆之實。不可不快正典刑。伏乞亟賜處分。以謝一世焉。批曰。前西伯事。爾所臚列。果皆爾所聞見乎。重臣處地自別。寧有是也。寧有是也。至於論及子姪。又何疾之已甚乎。大抵既非時刻上變之事。而爾以前啣。突地挺身。汲役章者。亦今日風習也。此習不可長。爾則削職。

金正喜는 부친 金魯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擊箏을 하기도 했는데(實錄 純祖 32년 壬辰 2月), 이렇게 秋史의 救命運動이 奏效했는지 純祖 33년 癸巳年에 국왕은 英祖가 그 和順翁主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寓薰殿에 出御하여 古今島 崔인 金魯敬을 석방한다고 했다. 그러나 政院에는 그 명령을 반대했고 玉堂에서도 그 하명을 거두어 들이라고 했고 또 兩司도 그 하명을 거두라고 聯疏를 올렸다. 그래서 결국 義禁府에서 金魯敬 석방을 그만 두겠다고 啓言을 올렸다. 그래서 방면이 중지되었다. 그 후 金魯敬은 哲宗 9년(1858)에 관작이 복관되었다. 관작이 복관되자 承政院이나 玉堂이나 原任大臣들이나 兩司에서 모두 왕명을 거두어 들이라고 했으나 英祖가 사랑하던 月城尉家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 이 문제는 啓言을 올리지 말라고까지 하명했다.

그러나 尹尙度를 다시 黑山島 配所에서 義禁府에 압송해서 陵遲處斬하던 해 憲宗 6년 8월 右議政 趙寅永이 金正喜의 처분을 재촉하자 결국 減死一等해서 鞫囚罪人 金正喜를 濟州島 大靜縣에 위리안치하라는 왕명이 내려 마침내 秋史의 濟州島 流配生活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 秋史의 친구요 同榜學友인 趙寅永은 秋史 문제를 결말지으라고 奏請하면서 減一等하여 死刑을 면하게 했고 또 이때 秋史와 친근한 사이인 權敦仁이 刑曹判書로 있으면서도 秋史를 구해내지 못한 것은 뿌리 깊은 時僻派의 대립도 있었거니와 趙寅永의 질녀가 世子嬪되는 것을 魯敬이 반대했다고 하였으니 趙氏(豐壤趙氏) 문중과도 사이가 벌어져서 趙寅永一派가 秋史一家를 돌봐 주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또 壯洞金氏와의 세력 다툼에 부채질했기 때문에 한다리(大橋, 忠南禮山) 金氏의 최후 보루인 月城尉家門마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 뒤에 憲宗 14년에 李穆淵·趙秉鉉 등과 같이 金正喜는 일단 방면되었다. 그 후 哲宗 2년에 가서는 秋史와 친한 權敦仁도得罪하여 귀양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때에 金正喜와 같이 싸잡아서 凶惡人으로 몰렸다(哲宗 2년 庚子 兩司 聯劄請 權敦仁, 金正喜, 決施當 律仍乞遞). 이들의 죄목은 慈聖의 뜻을 거역하고 王言을 무시했다는 죄목이다. 또 乙巳條에도 이러한 兩司合啓로 秋史를 명공하고 있다. 즉

「乙巳. 兩司合啓以爲. 噫嘻痛矣. 國綱雖曰漸頽. 世變雖曰層生. 豈有始金正喜之至凶且妖者哉. 蓋其賊性奸毒. 宅心回曲. 薄有才藝. 一是背經而亂常. 工於揣摩. 不出兇國而禍家. 世濟其惡. 是父是子. 陰結匪類. 如鬼如蜮. 爲世不齒. 亦已久矣. 其父追奪罪人魯敬. 干係何如. 負犯何如. 渠輩之得道收司. 渠身之止於島置. 已是失刑. 而年前有還. 特出於先大王好生之聖念. 渠若有一分人心. 一分臣節. 則固當歸守先機. 縮伏自靖. 含戴沒齒. 而猶復縱肆無憚. 跳跟惟意. 兄弟三人. 僂處江郊. 出沒城闕. 廟堂事務. 無不干與. 朝廷機密. 百計窺覘. 鑽刺曲逕. 締結掖屬. 情踪閃秘. 無所不至. 乃與平生生死友權敦仁. 合而爲一. 朋比固結. 暗地慫慂. 謂渠父可以伸復. 謀脫逆名. 謂舉世可以鉗制. 翻弄國法. 至有敦仁之公肆盛言. 無所忌諱. 此已是一大變態. 而雖以今番事言之. 祿禮之莫重莫嚴. 而乃敢參涉. 兄爲窩主. 弟爲使令. 到處游說. 要爲獻議之與同. 計終不售. 雖緣衆論之歸正. 言則流傳. 莫掩十手之皆指. 噫彼經營設施. 力護悖論. 必欲壞亂邦體. 眩惑人聽者. 其心所在. 路人可知. 此而不明示痛別. 痛折亂萌. 則又不知何樣駭機. 伏在何地. 言念及此. 豈不慄然寒心哉. 且彼所謂 締結之掖屬. 卽吳圭一與趙熙龍父子是已. 一爲敦仁之爪牙. 一爲正喜之腹心. 出入深嚴. 伺察者何事. 往來昏夜. 綢繆者何計. 醜態之變. 殆同伏莽將來之禍. 必成燎原. 豈可以微賤蠹虱之類. 忽之於防微杜漸之道哉. 請金正喜. 亟施絕島安置. 其弟命喜相喜. 并施教配之典. 吳圭一. 與趙熙龍父子. 亦令該曹. 爲先嚴刑得情. 快施當律焉」

이렇게 兩司는 秋史만이 아니요, 秋史三兄弟와 그 生父 魯敬까지 합쳐서 탄핵하였고 그 죄목도 말하자면 근신하지 않고 왜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정부를 공박하고 풍설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니 이 죄목이야말로 秋史 부자나 형제간의 죄목만이 아니요, 옛날 僻派의 한짓까지 통틀어 받아안고 있는 느낌이다. 그 뒤에도 같은 달에 兩司는 계속해서 金正喜와 그의 부하격인 吳圭一·趙熙龍 부자를 처벌하라고 啓言을 올렸으나 도리어 命喜, 相喜 형제는 北靑의 유배지에서 풀어서 고향에 돌아가 살게 하였고 吳圭一·趙熙龍만은 絶島

로 유배시키고 趙熙龍子는 불문에 부치었다. 이렇게 憲宗은 秋史一家를 보호하였으나 憲宗은 재위 15년 동안 대부분 王大妃 純元王后 金氏가 출곤 垂簾聽政을 했기 때문에 모든 政令은 安東金氏한테서 나온 셈이다. 그런데 憲宗이 親政한지 얼마 안 되어 15년에 急逝하니 恩彥君 裻의 孫元範을 모셔와서 후사로 삼으니 이 분이 哲宗, 이른바 江華도령이다. 哲宗 2년 이때 權敦仁이 풀려나서 領議政으로 있었으니 權敦仁과 壯洞金氏와는 서로 대립되는 政派가 되었다. 이때 정계를 주름잡던 趙寅永이도 세상을 떠나니 실권은 權敦仁이 잡았는데 哲宗 조모되는 安東金氏 純元王大妃가 계속해서 垂簾聽政을 하니 처음부터 壯洞金氏의 세력이 몰려들었다. 憲宗의 寵臣이요, 金正喜의 제자인 申觀浩(懋)는 요직에 있다가 哲宗이 즉위하자 곧 유배당하고 없었다. 反金세력으로는 오직 權敦仁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이때에 眞宗의 祧遷禮로 이론이 생겼다. 憲宗을 조정에 봉안하니 眞宗의 자리가 불편해져서 옮기게 될 문제가 생겼다. 즉 哲宗의 行列로 보아 眞宗의 祧遷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壯洞金氏의 無法擅斷한 주장인데 이를 權敦仁이 반대하자 權敦仁은 다시 官爵을 추탈당하여 順興으로 유배되었다. 이때 金正喜는 權敦仁을 배후 조종했다고 다시 北靑으로 流配되었다. 그러나 곧 다음해에 金正喜도 權敦仁과 같이 풀려났다.

이렇게 秋史는 그의 일거일동이 모두 安東金氏 勢道家의 주목을 받았고 또 한다리 金氏집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까지도 모두 화를 입어 조정에 발판이 모두 무너지고 말았고 또 秋史도 宦路에 대한 환멸을 철저히 느끼게 되어 生父의 묘소가 있는 果川땅으로 은거하여 독서와 書畫로 自娛하면서 후학을 지도하다가 哲宗 7년(1856) 10월 10일에 71세로 세상을 떠났다. 秋史가 北靑으로 귀양가게 된 것은 眞宗의 祧遷문제 때문이었다. 眞宗은 英祖의 第一王子로서 敬義君이었으나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즉위하기 전에 죽었다. 淸嬪李氏의 소생이니 純祖로 말하면 이복형제이다. 그러나 憲宗은 翼宗의 아들이니(翼宗은 純祖의 子) 眞宗은 憲宗의 從祖父格이다. 하물며 眞宗은 妣가 豐壤趙氏 趙文命의 딸이니 趙氏門中에서 중히 여기는 분이다. 이때 豐壤趙氏는 權敦仁과 같은 黨이요 豐壤趙氏는 安東金氏와 대립되는 당파이고 보니 權敦仁이 宗廟의 眞宗神位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安東金氏一黨은 金正喜가 權敦仁을 배후 조종해서 權敦仁이 祧遷을 반대했다고 해서 秋史도 權敦仁과 같이 싸잡아서 귀양을 보내게 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는 豐壤趙氏와

安東金氏의 당파싸움에 權敦仁과 金正喜가 말려 들었던 것이다.

秋史가 죽자 王朝實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前參判金正喜卒。正喜。吏判魯敬子。聰明強記。博洽群書。金石圖史。窮徹濫輿。草楷篆隸。妙悟眞境。時或行其所無事。而人不得以雌黃。與其仲弟命喜。填澆相和。蔚然爲當世鴻匠。早歲蜚英。中罹家禍。南竄北謫。備經風霜。用舍行止。世或比之於有宋之蘇軾」

이라고 史臣이 평하고 있다.

前記 安金들이나 정적들이 공격할 때에는 秋史와 그 형제, 그리고 그 부친 魯敬은 천하의 죄인이요, 아주 몹쓸 놈이었으나 죽고 난 뒤 史官들이 평한 것은 이와 같이 聰明強記하고 傳洽群書 金石國史 窮徹濫輿하다고 했고 또 書藝에 있어서는 草書나 楷書나 篆書나 隸書가 모두 妙悟眞境이라고 했고 詩文에 있어서는 남이 비평할 수 없이 뛰어나서 宋나라 蘇軾과 비교하였으니 가히 詩文書藝의 대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어쩌다가 家禍를 만나 남북으로 귀양살이를 했다고 하였으니 그 家禍가 반드시 金遇明의 報復이나 尹尙度獄 때문이 아니요, 英祖 때부터 세도 집안이 되고 중간에 僻派의 중심이 되어 思悼世子를 모함하여 죽게 하고 그 아들 正祖가 실권을 잡지 못하도록 가진 모략을 한 중심인물이 바로 한다리 金氏였기 때문에 그 여세로 중요 고관직을 독점하다시피 하였고 영광을 극도로 누렸으나 英祖가 승하하자 이내 金漢壽府院君 집은 正祖 때에 이미 절단이 났고 月城尉집은 純祖 이후에 安東金氏 세도에 밀려나 절단나는 바람에 金魯敬이 壯洞金氏勢力에 몰리고 秋史는 그 효심으로 해서 부친을 伸救하고 그 일문의 재기를 꿈꾸다가 마침내 濟州島에서 유배생활을 8년 동안이나 謫居를 당했다. 그간 秋史體라는 독자적 筆法을 완성하여 한국의 王羲之가 되었고 또 淸國에 사신으로 가서 金石學과 實學·考證學 등을 도입하여 우리 학계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기도 했다. 北學과 秋史, 書藝와 秋史, 金石學과 秋史, 佛敎와 秋史 등 다각도로 秋史를 재조명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本稿에서는 주로 黨爭과 관련 있는 僻派로서의 秋史를 조명해 본 것이다.